

대전·충남 언론인과의 만남

지방 분권과 지방 육성은 국가전략. 지역 언론도 존중되어야

대전충남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지역 국민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전략의 하나로서 지방분권, 지방 육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골고루 잘 살고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뜻에서 지방 육성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언론사들과 이렇게 대담 기회를 갖는 것도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 역시 지방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상징적 행위의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면 대체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지방화시대가 열리면 제일 전망이 밝은 곳이 충청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대전·충남도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화 전략 중에는 지역의 학교와 산업을 함께 연결시키고 그것을 기술혁신의 중심으로 삼아나가는 지역혁신 산학연 클러스트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도 역시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의 하나입니다. 어디라고 지정은 안됐지만 앞으로 행정수도도 충청권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또한 충청권의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대전 시 도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한번 해 나가봅시다. 그리고 오늘 좋은 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